

# 회 글

衆心을 얻는자는  
늘 安全을 保全하  
고, 衆怒를 犯하는  
자는 늘 禍敗에 미  
치나니라。(世宗大王)

## 차 목

여쭙는 말씀.....	宋 柱 星	(1)
한글 綴字法 問題를 考究할 물음과  대답.....	宋 柱 星	(2)
한글 統一運動에 對한 反對 陰謀 公開狀 反對者側의 이모저모.....	李 奎 奎	(14)
필경 學生까지 煽動하느냐 地方遊說의 愚.....	李 奎 奎	(20)
朴勝彬氏에게 合作交涉 顧末.....	李 奎 奎	(24)
「訓民正音原本」을 싸고도는 問題.....	李 奎 奎	(27)
訓民正音原本은 아직 얻어보지 못하였다 손과 기자.....	李 奎 奎	(28)
조선훈어학회 기자.....	李 奎 奎	(31)
.....	李 奎 奎	(32)
.....	李 奎 奎	(34)

第三卷 第三號 (三月號)

七 錢



編社會式株書圖城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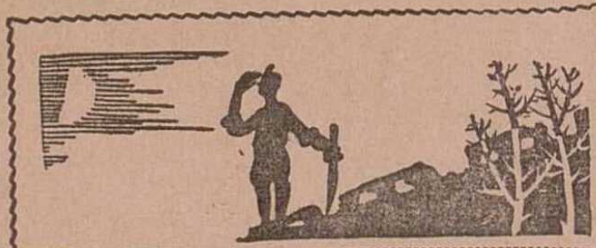
# 時調의 리

— 鬪 歌 名 —

【錢八料送・錢十二圓壹價定】

遊戲를 모르는 사람은 寂寞한 사람이다。그러나 野卑한 遊戲로 즐기  
는 사람도 賤品의 사람이다。그러므로 사람은 遊戲를 알아야겠다。同  
時에 高級遊戲를 가쳐야만 할 것이다。이제 朝鮮사람에게 가장 善美한  
遊戲材料로 提供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詩調이다。이 詩調  
놀이는 그 遊戲方式은 在來의 歌鬪와 마찬가지로 그 體裁와 內容에 있  
어서는 斷然同一의 論이 아니게 소리 優秀特別한 點이 많게 된 것이다。  
우리의 文學遺産中의 首位인 古時調二千首中에서 百首를 뽑되 이를  
그 專門大方으로 이미 定評이 있는 鷺山李殷相氏에게 囑하여 한 일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珠玉일것임은 다시 말할 것이 없고 그우에 插畫界의  
名星으로 들린 松崔永秀氏의 커트를 百首百態로 加味한 것은 더할  
수 없는 珍品이다。이것이 「時調노리」의 特殊點을 다시 말하리라

一、印刷 古時調二千首中 代表作百首選 歌辭及作者名의 絕對正  
體裁 在來流行보다는 倍大하야 遊戲上、保管上 極便極利함



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明月은 눈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금 짚고 서서  
진와람 큰한 소리에  
견힐 것이 없세라

瑞宗金





## 여 쭙 는 말 슝

돌아보건대, 이 한글은 편집과 경영권을 출판부로 옮기는 동시에 편집의 방법을 개혁한 것이 작년의 삼월 어느덧 이케 또 한몫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케 출판부는 이것을 경영할만한 남은 힘이 있는것이 아니요, 다만 일편단심으로써 이에 봉공하겠다는 청성만이 있을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움과 쓰라림을 맛 보아가며 무사히 지내어왔음은 오로지 만천하 애독자 여러분의 열렬하신 청원과 애호를 받아 된것인줄 압니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발표로써 실로 전조선 출판계에 신기원(新紀元)을 지었나니, 나날이 출판되어 나오는 서적이 거의 다 이 통일안에 의지하여 되지 않는것이 없다싶이 발달되어 가는것이 지난 일년의 일ियो, 또 일부 무지한 우리들조차 무리한 반대운동이 준 동하러할 때에 누구보다도 글을 더욱 많이 쓰는 전조선 문필가 친척이 그 우리들을 배 격하는 청명서를 발표한것이 지난 일년에 있었고, 한글에 직접 관계가 많은 교육계 종교계 신문사 잡지사와의 같은 중요한 기관에서 한글의 통일과 보급에 대한 거의 일치되는 의견을 본지에 연속 발표한것이 또한 지난 일년에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한글운동은 과거 일년간 현저한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면으로 극소수의 반대분자가 아직 남아 있어, 항상 감청적 언사로써 우리에게 대하나, 우리는 엄연한 학구적 태도로써 연구와 보급에만 힘쓰는터이므로, 그러한것을 모두 불분(不問)에 붙이고 말았읍니다. 근자에는 그들이 또 항간에 횡행하며 허무맹랑한 짓으로 민중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현명한 민중이 그 궤환한 술책에 빠질리야 만무하리라고 믿지마는, 장래를 염려하여 이케 부득이 여기에 그들의 음모한 행동의 일부를 폭로하여 민중의 앞에 공개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의 근본 태도에 어진 일인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대로 이러한 일이 없겠사오니, 독자는 깊이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最近 民間에서의

# 綴字法問題를 考究함

黃海道新溪郡赤余  
公立普通學校訓導

宋 柱 星

6818046

朝鮮總督府

學務局內 朝鮮教育會에서 發行하

는 「文教의 朝鮮」 二月號(通卷 百十四號)에 掲載된 것을 譯載한 것이니, 이것은 요사이 일어나는 한글綴字法問題에 많은參考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本文의 翻譯에 對한 文責은 譯者에게 있다. (譯者)

## 一、序 言

前年 學務局案이라는 것을 制定하여 教科書에 採用한 것을 筆頭해서 昨年에는 民間 唯一의 研究機關인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發表된 以來, 該案의 完美性和 民心의 科學的 覺醒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普及統一은 놀랄만한 勢力으로외 進展하여, 지금인 朝鮮文 刊行物은 거의 統一案에 依하여 刊行되고 있는 現狀이며, 半島 民衆의 一種의 文化的 革新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滔滔한 普及統一의 勢力은 一部分의 反對 現象을 問題가 아닌듯한 큰 勢力으로 이

미 朝鮮文 綴字法問題는 安定歸着의 길에 다다른 오늘에 와서 綴字法問題를 들어 云謂한다는 것은 無用的의 運筆이란 感이 없지 않다.

그러나 由來 時代의 어떠한 일을 勿論하고 어떠한 일의 革新이 있을 때에 滿場一致로, 한 사람의 疑異者도 없이 된 일은 에로부터 없는 일이나, 거기에는 언케든지 舊勢力分子의 反對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運動은 반듯이 舊勢力을 挫折시키고 그리하여 一路成就의 道程을 밟을것은 이 文化革新의 自然的 型態이다. 지금 筆者가 考察하려고 하는 新綴字法問題에 對하여서는 이와 같은 自然的 形態에 빠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 守舊派의 反對氣運이 擡頭하는 現狀이다.

이와 같은 守舊派는 自家所論이 이미 大衆에게 버림을 받고, 自己들의 行動이 効果없는 일인줄 認識하면서, 「既往 나선 몸이니까」라는 格으로 自家의 面目維持上 反對하기 爲한 反對로서 힘의 자라는대까지의 모든 手段方法으로서 反對運動을 敢行하고자 하는 現狀이다. 그들은 요사이 確然히 不動의 立場에 있는 우리學園에까지 體面없는 反對의 손을 뻗치려고 한다. 얼마 전 全朝鮮 各普通學校에 配布한 所謂 「朝鮮文記寫整理會」의 名義로 「한글綴字法反對聲明書」라고 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民間의 社會事象이라 우리 教育者의 關心의 圈外事  
이니 일일이 여기에 귀 기울릴 必要도 없으나, 그러  
나 이 朝鮮文綴字法의 歸結 如何는 直接 學校教育上  
에 影響을 미치게 하는 것이니, 守舊派의 反對內容에 依  
한 그 目的物로 삼는 것은 우리의 教科書式 綴字法과  
相違없는 民間의 新綴字法이니, 改正綴字法을 實際로 準  
用 教授하는 使命을 가진 教育者의 立場으로서 沈默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筆者가 이 原稿을 쓰게 된 動  
機일뿐 아니라, 또 한가지는 行여 이와 같은 事實의  
內容을 熟知하지 못한 同職者가 있어서, 잘못하여 「너  
의 利器를 버리고 나의 鈍器를 取하지 않나」 하는 얼  
빠진 그들의 手段에 넘어가지 않음과 遠念하는 마음  
에서 同友의 萬一을 警戒하는 것은 私的으로는 一種의  
友愛的 責務로 생각하고서 本問題에 對하여 말하려 하  
는데, 어디까지든지 學的根據에 立脚하여 考察하고 批  
判하려고 하는 바이다.

### 一、新綴字法의 本體

人類의 文化는 극히 低劣한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모  
든 事物에 單純簡便한 것으로 外 滿足함을 얻었으나,  
文化가 점점 發達함을 따라 人類社會의 모든 制度文  
化 自然 複雜化하여지는 것이다.

文字의 發生 그 自體부터가 文化의 發展, 文物의 複  
雜化한 것을 意味한다. 그래서 文化가 점점 發達하여감  
은 必然的으로 文字의 複雜化를 要求하는 것이다. 이것  
은 文字의 複雜 그것이 必要하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  
相當히 複雜하여진 뒤에 高等文化의 表現符號로서 그  
職能을 다할 수 있으므로 위이다.

朝鮮文은 世宗의 創製以來 今年까지 四百 八十 八  
年의 오랜 歲月을 지나왔으나, 漢文專崇의 通弊에 依  
하여 극히 輕蔑하여왔고, 이 글의 使用은 巷間의 婦  
女子들만으로 一般 有識階級은 거의 돌아보지도 않았  
었다. 그러므로 一定한 綴字方式이 있을 리 없고, 그 實  
際 使用의 綴字 形態는 實도 千人萬態라기보다, 同一  
人이 同一文을 表記하는데도 그 前後가 서로 다른 극  
히 無秩序하고 不統一한 奇觀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世界를 風靡하는 科學的 思潮는 점점 民衆  
을 覺醒하게 하였으며, 이 氣運은 朝鮮歷史上의 甲午  
更張 以來, 學者 周時經先生의 朝鮮語文에 對한 絶大  
한 學的貢獻에 依하여 顯著한 功蹟을 보게 된 것이다.

爾來 現代文化의 急速度的 發達과 함께 이에 關心  
하는 여러 人士가 輩出하여 數十年 동안 研究와 統一  
에 專念하여 드디어 民間 唯一의 學者團體인 朝鮮語  
學會의 손으로 完成을 보게 되어, 再昨年 十月 二十  
八日 即 訓民正音 頒布記念日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發表하였다。이제 新綴字法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을 가리침이다。그 統一案이라 함은 실로多數學者의苦心과 努力의 結晶體라고 할수 있다。

執拗性이 強함은 學者의 自說擁護의 程度 以上이 없다。自說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態度를 가진 學者들이언반、大局的 見地에서 서로讓步하며 討究論議하여 실도二三年이란時日을 要하여 統一案을 만들었다고 한다。

對立이 많은 朝鮮社會에 있어서는 실로 珍奇한 情勢도、朝鮮民衆이 劃時的 文化革新을 가져오는 所以라 아니할수 없다。

이와 같이 一流의 學者의 純然한 學的 貢獻에 依하여 오랜 歲月을 두고 腦漿을 짜 制定된것만큼 오늘날 民間 大衆은 그 完美를 말하고、學世的 普及統一의 大勢는 실로 急進的이다。이제 그 統一案의 內容을 一瞥하건대 모두 七章에 나누어、標準語에 關한 規定 및 字母、聲音、文法、漢字音、略語、外來語表記、 띄어쓰기 등의 項目으로 되어 있다。

### (一) 單語綴의 表意化

元來 朝鮮文은 國語의 假名과 같이 表音文字이다。純然한 語音만을 表記하는 符號이다。글자 그것이 어떤 概念을 나타내는 表意文字인 漢字와는 그 性質이

권혀 다르다。

그러나 朝鮮文은 同一한 科學的 綴字法을 쓰나、文法如何에 依하여 單語綴의 表意化가 可能한것이다。본래 表音文字는 語音 그대로를 表記하는 本質의 文字이기 때문에 言文一致를 期하야 배우기 쉬운 反面에 배우기는 어려워도 배운 뒤는 即觀念을 把握할수 있는 表意文字인 漢字의 特徵을 갖지 않음은 그 本質上 그럴 일이다。이제 만약、表音文字로서 表意文字의 特徵을 兼備한다면 그야말로 文字로서의 最善의 職能을 다할것이다。

여기에서 單語綴의 表意化를 企圖한 所以가 있으며 이야말로 新綴字法의 最大意義를 가진 所以이다。그것을 簡單히 例示한다면 「鎌、顔、晝」의 뜻을 從來의 表記에 依한다면 모두 「낫」이라고 쓸수 밖에 없으나、新綴字法에 依한즉、낫(鎌)、낫(顔)、낫(晝)이라고 달리 表記함으로써 表意化를 하는것이다。

### (二) 終聲復活과 文法的整理

前述한바와 같은 單語綴의 表意化를 함에는 文法의 確立을 期하고서、文法의 確立을 期하자면 終聲 十四字의 復活을 하지 않고는 안될것이다。世上에는 新綴字法에 있어서 終聲의 復活을 하여금 新造文字와 같이 생각한이가 있으나、이것은 결코 그럴것이 아니다。이것은 다만 訓民正音에 還元하여 「終聲復用初聲」의 大



原則를 適用한 結果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結果로서 從來에 使用하던 몇개의 單終聲 밖에도 ㄷ스ㄱㅇ과 ㄱㅈㅊㅋㅇ과 ㄱㅈㅊㅋㅇㅈㅇ의 單重終聲을 더하였다. 따라서 體言과 助詞、用語의 語幹과 活用部와의 區別이 確然한 文法的 確立과 함께 單語綴을 表意化한 것이다. 이것을 例示한다면、

고치(花)를 꽃이

거지(乳)를 젖이

할트오(祇)를 할오오

알흐오(痛)를 앓오오

### (三) 表音的 表記法

純粹한 朝鮮語나 漢字音임을 不問하고 實際發音과 一致시킴으로써 實用上的 困惑을 避하고 使用上的 便利를 圖하기 爲함이다. 一例를 들면

祖(조) 朝(조) 調(도) 등의 實際語音과는 不一致한 歷史的 表記法의 困惑을 避하고 모두 「조」로 한 것이라

든지, 「하음소치」를 「소치」라 表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모든 點은 學務局式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것을 一見한다면 難澁하고, 너무나 規則的이라고 反對하는이가 相當히 있는 모양이나, 其實은 도리어 從來의 그것에 比하여 알기 쉽다. 쓸대없이 反對하는 것은 從來의 放慢無秩序的 書法이 손에 익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拘束되는 方式을 嫌忌하는 心

理의 表現에 不過하다. 한번 알고볼 것 같으면 新綴字法의 妙味津津함을 느끼는 것이다. 要컨데 新綴字法은 綴字方式을 科學적으로 整理하여서 文法을 確立하고 混亂에서 統一으로 나아가며, 또한 實際의 使用에도 便利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最善의 案으로써 一般大衆이 이를 迎合準用하게 된 것이 결코 偶然한 일이 아니다.

### 三、民間案과 學務局案

學務局案에 있어서 諺文綴字法 改正 理由가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卷一 編纂趣旨書에 있는 바와 같이 그 大綱의 (一)에 쓰이어 있기를 「兒童 生徒의 學習上負擔을 輕減하고, 學習能率의 一層 增進하기 爲하여 改正을 要한다」하고, (中略) 「그 綴字法을 學理的으로 또는 整理하고 單純化하여」라 하였다. (下略) 이것이 民間案과 教科書 改正趣旨가 전혀 一致한 것이다.

同一한 趣旨이면 同一한 內容일것임은 推知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文化的 發展은 끊임 없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文化的 所產物도 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닌즉, 보답터 좋은 方面으로 改善發達하는 것이다. 그리고 綴字法이 民間案이나 學務局案이나를 不問하고 將來에 最終, 最善의 것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後日에 또 어떻게 改善될것을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다만 現在에 있어서의 問題가 될 뿐이다.



적어도 文化的 發展性을 보는 社會에 있어서 事物의 어떠한것임을 不拘하고 昨日에 일어난 事實은 今 日엔 옛일이 되는것이니, 때의 經過에 依하여 新舊, 進不進의 딱지가 붙는것은 必然的 理勢가 아니면 안된다. 그 民間案이 學務局案보다 늦게 出生한것만큼 一 層의 進歩를 보이고 있는것은 當然한 歸結이요, 不得 已한 일이다. 그러나 그 根本되는것은 어디까지 同一한것이다.

지금 試驗조로 兩案의 內容의 大綱을 考察하건데, 實로 寸分の 差밖에 없다. 即

(一)은 民間案이 終聲의 全部를 復活한대 對하여 學務局案은 終聲만은 議論할 餘地가 있다 하야 採用을 保留한 點이다. (終聲의 可容에 對하여서는 별 處 議論할 餘地가 없다는 大勢도, 將來는 반듯이 教科書에도 採用될것을 確信한다) 따라서, 重終聲 なる 道 없는것이다.

(二)는 表音的 表記法의 適用에 있어서 民案은 學案에 比하여 積極的이요, 徹底的인 點等이 그 主要한 差異라고 할뿐이요, 그밖의것은 전혀 꼭 같은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朝鮮文 綴字法을 말할 때엔 兩案을 指 摘하는 意味이다.

그래서 지금엔 적어도 朝鮮文으로서의 刊行物은 그 의 八〇%餘가 新綴字法을 準用하여 發刊 文化的 大

革新을 가져온것이 確實한 事實이다. 이것은 곧 朝鮮民衆의 科學的 思想의 發達과 朝鮮 文의 價値를 認識한 所以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統一的 大勢에 있어서 一部人士의 新綴字法의 反對運動을 일으키고 있음에 對하여 陰으로 陽으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우리 教育者들은 注目할 價値가 있다는것보다도 沈默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反對派(守舊派)는 단지 派生的 心理로서 反對運動의 對象을 民間案(朝鮮語學會案)에 두는 모양이나, 其實은 教科書式 學務局案에 挑戰하고 있는 內情을 어 떻게 하겠는가? 내가 이 問題를 論考하는 動因은 전 혀 여기에 있는것이다.

본래 朝鮮人은 黨派중에서 나고, 黨爭에 依하여 生 長(?)한 國民과 같은 感을 가지고 있는 根性이 多 分이 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한목 보고 싶어한다. 自己의 關心外의 領域에까지도 솔대없 이 干涉하기 시작하여, 自身이 宗主者然하므로써 結局엔 黨爭을 시작하게 하는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것은 人間의 通有的 弱點이라고는 하더라도, 특히 朝鮮人 社會에 있어서는 더욱 濃厚한 것이다. 그것은 오래동안 無統制한 社會에서 生長하였



기때문에 길리워진 國民性이라고 할는지!

이와 같은 爭派的 事象은 일의 大小를不拘하고 거  
의 例外를 보이지 않는 곳에 가지고 와서 一種의 文  
化革新인 綴字法改正의 大問題를 提示된것인바、企待하  
고 있었다는듯이 問題를 提示한것 같다。이야말로 爭  
派의 歷史的 本然性이라 생각하며、暫新的 新事件이랄  
것도 없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처음 들으시는이가 있을는  
지 알수 없으나、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數月前 朝鮮  
文記寫整理會라는 名義로 「한글式綴字法反對聲明書」라는  
것을 配布한것이 곧 그들의 爭派的 戰術인것이다。

勿論 어떠한 社會에 있어서든지 어떠한 改革運動이  
있을 때에는 그에 對한 反對運動이 나타나지 않는것  
이 없다고는 하겠으나、그러나 이것이 반듯이 當然한  
理勢라고는 할수 없는 일이다。

物件에는 表裏가 있고、또 밝음이 있는 反面에는 어려  
움이 있는것과 같이、正當한 일의 한편에는 邪가 있  
는것이다。아무리 讓步的으로 생각한대도 綴字法 反對運  
動에 限해서는 一片의 理由라고 할만한 理由를 찾지  
못하겠다。結局 그들의 無理解와 歷史的 本然性이 黨  
爭心の 發作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 四、反對運動의 正體와 그들의 論據

그러면 그들의 守舊反對派는 어떠한 本體를 가진것  
인가? 또는 어떠한 學的根據에 立脚한것인가? 모든  
事物의 批判考察은 目的體에 對한 正當한 認識 밑에  
서 되지 않으면 안된다。이케 조그마치 그들의 正體  
로 하여금 어디까지 嚴正한 態度로 더구나 어디까지  
든지 學的根據에 立脚하여 解剖하여보려 한다。

그들의 反對聲明書 發表에 列名한 人士를 보건대、  
그중에는 혹 一部 社會에 있어서는 相當히 이름이 있  
는이도 있고、公職者도 있고、自稱 學者도 있다。그  
러나 그들 自身이 朝鮮文記寫整理委員이라 이름하였으  
면서도 朝鮮文이 어떠한것이라는 그 本質부터 알지 못  
하는 人士도 있으며、民間 大衆으로 부러 夜間叢生の  
學者라는 嘲笑까지 받은 일이 있었던것이다。

이와 같이 反對運動의 表面에 나타난 사람들은 以上  
과 같거나와、이것이 人名集團이 組織되어 反對運動의  
具體化한 內面에는 微弱하나마 어떠한 숨은 團體의 背  
後操縱에 依함이라고 한다。그 團體라고 하는것은 지  
금 京城府內에 籍을 둔 朝鮮語學研究會라고 한다。即  
該 研究會는 朴勝彬이라고 하는 사람을 首班으로도 하고  
同事務所內에 組織된 京城府內 有閑階級の 社交團體인  
啓明俱樂部의 部員의 大部分을 會員으로도한 自稱 研究  
團體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學的根據를 가진것인가? 그



正體가 夜間叢生の 學者라는 嘲笑을 받는것 같이 온  
 낀한 主義主張 같은것이 있을리가 없다. 다만 新綴字  
 法은 從來의 慣例에 疎遠(?)하다는 反對뿐이다. 그러  
 나 거의 前記의 該 反對運動의 中心人物인 朴氏의 說  
 을 背景으로 하였다는것은 너무도 明白한 事實이다.  
 이케, 그 說의 學的根據를 찾고, 아울러 若干의 批判  
 을 試驗하겠다.

(一) 硬音 表記을 하는 경우에 並書法을 第一 먼저  
 反對한다. 即 從來의 「된시옷」을 主張한다. 硬音 表記  
 는 한 符號인 「ㅅ」으로 치하는 以上, 從來의 그것을  
 慣用할 일이지 慣例를 깨뜨리는 並書式은 不可하다  
 고 한다.

그러나 並書式은 그 根據가 漠然하게 文字的遊戲  
 가 아닌 幾多의 歷史的 文獻에 밝히 있다는것은 論  
 할것도 없거니와, 常識적으로 考察한다더라도 어떤 같  
 은 物體이 두개가 重疊되어 있다면 單單할것을 알  
 것이요, 아무리 보더라도 ㅅㅅㅅㅅ보다도 ㅅㅅㅅㅅㅅ  
 의 편이 훨씬 條理가 있는 論證이니, 議論의 餘地  
 까지 없는 問題다.

이것이 教科書式 綴字法에 採用한 所以다. 무엇보  
 다도 一般의 大勢가 雄辯으로 말하다. 現在 「된시  
 옷」을 慣用하는것은 「每日申報」만을 除하고는 거의  
 자취를 찾을수 없으니, 이와 같은 大勢를 살피지 못

하고 依然 守舊觀念을 固執하는 그들에게는 조금도  
 發展性이 없다고 하겠다.

(二) 促音現象을 表記하는데 그들은 「ㅈㅈㅈㅈ바람, 안ㅈ  
 고」 등으로 치서 「ㄱ」와 같은것을 獨創해서 主張한  
 다. 생각하건대 現在 있는 글자로 치도 조금도 不自  
 由함이 없는대도 不拘하고 이와같은 奇怪한 文字(?)  
 를 獨創하였기까지 云云한다는것은 꼭 文字的遊戲도  
 밖에 그 眞意를 알 길이 없다.

(三) 語幹의 末音을 그들은 「아, 어, 예, 오, 우,  
 으, 이」의 七種에 限하여는 「애, 예, 외, 위」 등의 音을  
 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結果 「아이」를 「아이오」를  
 「아이를」 자이오라 하고 「先生의 성내오」를 「성나이오」  
 라 하고, 「그사람이 군세다」를 「군서이다」等 (其他는 여  
 기에 準함)과 같이 表記한다고 말하였다. 이야말로 從  
 來의 朝鮮語音을 無視한 妄想이라 할것이다.

(四) 終聲 음을 認定하지 않으면서 激音符號 「ㅍ」  
 를 또 創造하여 「길」이 「공졌다」를 「곤ㅍ졌다」, 또는  
 「새알가ㅍ다」와 같은 表記를 主張한다. 그래서 重終聲  
 의 모두를 認定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以上과 같은  
 것은 도무지 苦笑을 禁하지 못하게 하는 妄說이다.  
 (五) 漢字音이나 純朝鮮音이나를 不問하고 歷史的  
 表記를 固執하여 「도ㅍ다」 「런디(天地)」 「하디못하다」  
 「도리못하다」等과 같은 表記를 主張한것이다.



以上 그들의 論據를 처음 보시는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놀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從來의 語音과 不一致에 依한 不自然한 表記法、怪奇無雙한 獨創文字等에 依한 獨斷的 理論、여러분은 果然 驚駭할 일 것이다。그것이 그 理論과 內容이 新綴字法으로 된 우리의 教科書式案과 얼마나 떨어져진 것인가를 알 것이다。

教科書라든지 其他의 모든 出版物로 因하여 新綴字法이 거의 統一의 途上에 있는 오늘에 와서 그와 같은 怪奇無比한 似而非한 理論에 依하여 新綴字法의 反對를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迷盲을 벗어나지 못한 結果라 하겠지마는, 그 程度의 甚함은 실로 그의 뜻을 찾기 困難하다。

아무리 同情的 批判을 나린다더라도 新綴字法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反對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眞實한 文化運動이라 할 수 없다。自身的 迷盲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모른거니와, 一顧의 價値도 없는 愚論으로써 우리의 確然不動할 學園에까지 손을 뻗치어 그들의 綴字法이 不當하다 한다고 官制의 그것까지 反對한다는 것은 幼兒의 宿虎衝鼻의 大膽한 것을 꾸짖지 못할 것인가? 다만 그들의 앞에는 反省한 것을(鏡)이 있을 뿐이다。

## 五、結 論

以上 新綴字法의 本體를 究明하고 그에 對한 一部의 議論에 對한 內容을 闡明하여 이것이 運動의 動向에 關한 若干의 論究를 試驗한 것이다。實로 朝鮮文綴字法問題는 正히 最高潮에 達해서 이것의 歸結 如何는 半島 文化促進上 重要な 影響을 미치게 하는 것 인즉, 더욱이 우리들 教育者로서의 重大한 關心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改訂教科書의 新綴字法이 어떠한 것이라 는 알지 못함이 많고, 또 알려고 하는 態度까지 없다는 것은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實際教授를 當해서는 時間을 虛費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泰然한 態度를 가진 朝鮮人 敎員이 없다고 누가 保證하라。

이것이 다만 朝鮮語科만의 不成績으로만 그친다면 모 르려니와, 結局엔 다른 學科에까지 惡影響을 미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田島氏가 朝鮮語科의 地位를 決코 等閒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所以가 實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적어도 敎員되자는 現下의 問題인 新綴字法의 本質을 알고, 여기에 對한 社會의 動向을 正察하여서 슬대없이 他種의 秋波에 흔들리지 않기를 期하여서, 다만 天與의 職인 教育의 本道를 向하여 精進할 것이다。(끝)







독 말 령 물 물밖 벌 북 북  
뉘 샅 슌 얽 읊 읊 얽 읊 출 략  
함 홀

래바침 ㄹ 값 절 품 출 값 높 낮  
툼 툼 말 말 말 말 북 북 살  
섬 섬 앞 앞 읊 읊 읊 앞 절 읊  
질 락

래바침 ㄹ 값 낯 닭 락 툼 툼 말  
북 살 섬 슌 읊 읊 앞 절

로 쓰지 아니하였음니까。 또 훈민정음(訓民正音)에는

「不 불, 흥 배, 모 흥 노미, 여 들 宇, 發 발,舌 설,驚 병,戊 숭,必 발,一 일,別 별」로 쓴 것이 있고,

용비어찬가(龍飛御天歌)에도

「하 흥 받디, 사 립 받디, 잠 길히, 쇠 북 使者, 오 심 케, 건 너 심 케, 도 라 읊 軍士, 아 드, 님 괴, 避 仇 흥 소 니 마 리, 남 굽 므 스 미, 眞 々 새, 々 々 새, 도 슌 거 니, 반 스 불 케, 아 바 眞 梓 宮, 孝 道 흥 아 들, 거 슌 도 스 眞」

이렇게 많이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고 지금 꼭 이대로 쓰자는 뜻은 아님

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박승빈씨 자신도 들바침을 부인하면서 「밖」 같은 것은 씁니다。 한개를 쓰나 여러개를 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가모순의 짓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을 들어보더라도 구태어 들바침을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아홉돈」을 「값사홉돈」이라 할수 없다는 그런 논법은 그이가 청음학(聲音學)의 원리를 모르는 한 추상론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청음의 원리를 말하려면 너무 장황하겠으므로 그만두기로하고, 여기에는 간단히 그리된 이유만 말하겠습니다。 두개의 뜻을 가진 한 낱말(單語) 가운데는 종속적(從屬的) 관계와 대립적(對立的) 관계로 된 것이 있습니다。 가령 「먹어서」 「없으니」 「풍기다」와 같은 말들은 그 말의 어간(語幹) 아래에 있는 「어서, 으니, 기다」는 다 종속적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옷 말의 소리에 동화(同化)가 되거나 섞이어버리

거나 하여 그 옷 말의 어세(語勢)를 강하게 하는 관계상 아랫말이 거기에 딸리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불으시는바 「값아홉돈」과 같은 것은 「값」과 「아홉돈」이 각각 독립된 품사로서 대립적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둘중에 아랫 말의 어세(語勢)를 더 강하게 하는 관계상 자

연 옷 말의 끝소리를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에 스이 묵살되나 그 원형(原形)은 질대로 변할수 없습니다。 박승빈씨가 「값 아홉돈」이라 쓴 것을 꼭 값사홉돈으로 읽어야 한다니, 그러면 「옷 안에(衣內에)」를 그는 「오산에」라 하며 「꽃우에(花上에)」를 그는 「꼬추에」라 하는지요? 만일 발음되는대로만 글을 쓴다면 「옷이」, 「옷도」 할적에는 그렇게 쓰고, 「옷안에」 할적에는 「은 안에」나 「오단에」로 쓰야 할 것이며, 「꽃이」, 「꽃과」 할적에는 그렇게 쓰고 「꽃우에」 할적에는 「꽃우에」나 「꼬두에」로 쓰야 할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흔란한 노릇이었음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가 그러한 음리적(音理的) 관계를 돌아보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박승빈로써 무슨 그러한 말씀을 하였을것 같지 아니합니다.

「남」이란것은 그들이 특하면 시세우기가 일수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부이설과(異說派)에서 취호맥자로 트집을 잡는 유일의 재료입니다. 그러나「남」이란 말을 통일안에 미바침 아래 다만 한 어례(語例)로 넣었을뿐이요, 이것을 표준어(標準語)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표준어는「나무」만일「남」이라고 꼭 써야 할 경우에 그 아래 붙는 도를 다른 명사의 토와 같이「이, 은, 을, 에」를 쓰는것이 좋다는 뜻으로「남」으로 된것입니다. 곧「남이, 남은, 남을, 남의」와 같이 할수는 있으나「과, 도」와 같은 토가 붙을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아니합니다.「남구와, 남구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예외로 칠것입니다. 우리 조선말에는 이러한것

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다오」(給我)「주시오」의 下待語(下待語)란 말은 같은 동사(動詞)이건마는, 동사 아래에 붙는 토로 활용할수 없는것이니,「다, 다니, 다서」라 하여 도무지 쓸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명사에도「나(我)」라는 말을「나는나를, 나도, 나와」하지마는, 「가, 게, 니」의 토들을 달아 쓸 때에는「내가, 내게, 내니」라 하여 그말의 원형이 변하는것도 있습니다. 어찌 꼭 일정한 범칙으로 공동되게만 쓴다 할수있읍니까. 우리가 말을 만들지 못하는것인즉, 말 되어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무범을 논할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말이 불규칙으로 되어가끔 처리하기 어려운것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려고 켜려고 할것없이 이미 되어 있는 표준어인「나무」도만 썼으면 그만이 아닙니까. (이운재)



宋完植 編

新最 日鮮大字典

▲四六判 五百八十頁  
▲印刷精麗 寫眞版  
▲裝幀堅實 漢裝

◎定價 一圓五十錢

送料 十錢

이에서 特色을 普通 다른 字典 特色을 갖추어 있다. 鮮 日本, 中國의 俗字까지 無 漏 收載한것. 訓釋을 新綴字法(統 二 案)으로 詳釋한것. 三 古代의 儀器, 服飾 및 動 四 植物을 插圖한것 譯字는 原語를 對 五 照한것. 六 古代의 地名, 山名, 水名, 七 國名等을 現今의것과 對照한것 八, 音考가 있는것.

〔本出版部로 注文하신이 에게는 二割引 提供, 送料는 本部가負擔〕



# 月刊雜誌「한글」은 어떤 것인가?

**한글** 은 朝鮮에서 오직 하나인 語文 研究 機關인 朝鮮語學會의 雜誌이며  
 同時에 朝鮮사람인 義務로 받듯이 읽어야 할 여러분의 雜誌입니다。

**한글** 은 斯界에 일즉 이름이 있는 李允宰氏가 主幹이요, 한글 研究의 最  
 高 權威인 여러 先生이 執筆한 것으로, 字字이 無非 精金美玉입니다。

**한글** 은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を 發布하신 以後, 처음 한번 整理가 있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徹底히 實行 普及하기로 期圖하는 것입니다。

**한글** 은 크게론 民族 全體의 羞恥요, 작게론 個人 自身으로도 不便을 느껴  
 오는 오늘날 亂麻같이 混亂한 우리글을 統一의 길로 밟아가려합니다。

**한글** 은 專門家の 學究的 論述은 될수있는대로 避하고, 가장 平易하게 通  
 俗的으로 써서, 누구라도 한번 보아 곧 實地 應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은 每號에 連載되는 普通學校의 朝鮮語 教授法과 中等學校의 한글 文  
 法 講義 같은것은 實際 教授上, 學習上에 必要히 參考가 될것입니다。

**한글** 은 語文 專門雜誌인 同時에, 朝鮮歷史, 世界文學, 小說, 詩歌等 趣味있  
 는 記事를 時時로 紹介하여, 多方面으로 讀者에게 有益을 얻게합니다。

**한글** 은 오로지 普及을 爲主하므로 誌代는 가장 低廉하여, 이러한 內容에  
 값은 단 七錢。 이렇게 僅小한 金額으로 多大한 實益을 얻게 됩니다。

! 조선말과글을 사하러 곧 購讀하라!



## 한글 統一運動에 對한

# 反對陰謀公開狀

한글이 創制된 以後 오늘날까지 한번도 整理되지 못하여、現在 各人 各樣으로 쓰는 綴字 方式은 極度로 混亂한 狀態에 빠지며、一般이 不便을 느끼어 옴이 적지 아니하였으며、더욱이 實際敎育家와 文筆家들은 統一된 綴字法이 하루바빠 나오기를 渴求한 것이 事實이었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急先務인 이 綴字法 制定에 心血을 傾注하여、熱烈한 時代的 要求에 酬應하고자、刻苦奮勵、多年 努力하여 왔읍니다。그리다가 마침내 再昨年 한글 紀念日을卜하여 朝鮮語 綴字法 統一案(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世間에 公佈하였삽더니、과연 社會 各界 人士의 懇曲한 聲援과 不斷한 鞭撻 督勵가 逕至할뿐 아니라、敎科書、新聞、雜誌、單行本等 온갖 出版物이 滔滔한 形勢로 이 統一案을 採用하여、短時日間に 놀랄만한 收穫을 얻게 됨을 볼 때에 우리는 衷心에서 일어나오는 歡喜와 感激의 눈물을 禁할수 없읍니다。그러나 이러한 成果는 到底히 한 學會의 힘으로 能히 될것이 아니요、오



로지 民衆의 時代的 要求에 符合된 所致임을 確信하는바입니다。

이렇듯 綴字 統一의 使命이 거의 完成의 域에 到達하게 되어、朝鮮 民衆이 함께 慶賀를 마지 않삽더니、近者에 이르러 自家 樹立의 功名心에 汲汲한 一部에서 따로이 朝鮮語 研究를 標榜하고、우리의 大同 協調하자는 屢次의 提議에도 應하지 아니하고、혹은 保守退嬰的 몇몇 頑固와 全然 語文 研究에 無關係한 人士를 糾合하여、朝鮮語 綴字法 統一案에 反對運動을 策動하며、혹은 그 機關誌를 通하여 우리에게 對한 誣毀中傷的 詭辯을 羅列하여、一方으로는 이 舉族的 한글 科學化 運動에 對하여 挑戰的 反旗를 들고、他方으로는 數百萬 生徒를 가르치고 있는 新綴字로 된 教科書의 翻覆을 企圖하려는 蠢動이 漸次 露骨化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所謂 研究 學說이란 것이 非學理的 또 非實際的임은 勿論이어나와 (別記 乙項과 같이) 研究가 研究에 그치지 아니하고、反逆的 陰謀와 毀傷的 辱說에 이름이 한두번이 아니로되、우리는 그것을 足히 掛齒할바 論議의 對象이 못된 다 하야、一向 隱忍自重、이 때까지 沈默을 지켜 왔읍니다。그리고 또 最近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邪惡이 더욱 늘어서、혹은 某某 學校 生徒를 巡訪하야 本人의 陳述과는 相左되는 新綴字 反對의 虛僞記事를 忌憚없이 掲載하야 一世를 誣惑하려 하며 (別記 甲項 一과 같이)、또는 사람을 地方에 派遣하야 平素 自家



主張의 奇怪 難澁은 全然 隱蔽하고、다만 남을 中傷하는 詭辯을 弄하여 新綴字 反對 ○○書라는 怪文書에 地方人士의 署名捺印을 强誘하는 (別記 甲項 二와 같이)等 여러가지 怪事實이 暴露되었읍니다。이뿐 아니라、그 陰險 惡辣한 行動을 어찌 筆舌로 다하리오。이는 우리 文化運動의 一大 魔障이요、民衆의 敵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陰謀한 行動의 一端과 奇怪한 主張의 若干을 들어 우리 社會에 公開하지 아니할수 없읍니다。이것이 實로 우리의 本意가 아니오나、이러한 것이 어느 時期에 이르면、혹여 우리 文化에 크게 害毒을 줄 憂慮가 없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므로、부득이 이를 賢明한 民衆 앞에 한번 發布하여 嚴正한 批判에 맡기고저 합니다。

昭和 十年 二月 二十三日

朝鮮語學會

記

甲、陰謀事實 調査

(一) 學生 巡訪事件

그들의 機關誌에 『市內中等學生巡訪記』라 題한 글가  
은대 몇몇 學生의 感想을 쓴 것이 있으므로、그 實狀을

調査한바、그중 倣新學校 二年生 K生의 말 가운데  
「一學年 때의 成績이 新綴字法으로 試驗한 結果 全部  
가 丙이었다」라 한 것은 그리 말한 일이 없다고 그  
學生의 自白이 있을뿐더러、그 班 成績簿를 調査한  
즉、朝鮮語 成績이 中途入學者 一人을 除한 外에 全部



가 乙、혹은 甲이요、大多數가 丙으로 된것은 數學 英語等이었다。또 中央高普 一學年 S 生의 말 가운데 「試驗 때에는 統一案대로 쓰면 教科書대로 쓴것보다 點數를 더 많이 받는다」라 한것은 그 學生이 絶對로 말한 일이 없다고 自白하였다。이 두어 實例로도 足히 全體를 미두어 알것이다。이와 같이 無 根한 事實을 捏造하여 世人의 耳目을 眩惑할뿐더러、 어린 學生들을 煽動하여、學科에 對한 厭忌心과 先生에 對한 反感心을 일으켜서、將次 教育界에 不祥事를 장만하게 하는 所爲는 容恕 못할 罪惡이다。(李允宰 調査)

## (二) 地方 遊說事件

지난 冬期放學을 利用하여 左記와 같은 陰謀가 있었다。

### (1) 宣川件 (宣川 東亞日報支局 李英學氏 書信)

宣川 왔던 사람은 京城 大東商業學校 敎員 金鳴鎭이란 사람이요、宣傳한 言辭는 大概 宣傳文에 쓰인것이였다 합니다。서술사람 中心(發音 其他)으로 된것이라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곳 와서 大同旅館에 留하며 主人 黃龍甸氏에게 付託하여 十數人 捺印하여 간 事實이 있습니다。捺印한 사람들은 한글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地方

(2) 全體의 影響은 別로 있는것 같습니다。 寧邊件 (平安北道 寧邊 蔡祐炳氏 書信)

遊說者는 京城 大東商業學校 敎員 金鳴鎭氏。 煽動 內容은 金氏가 寧邊에 와서 한글 統一에 反對하는 甘言利說로 地方人士에게 對하여 그 反對運動에 加入하라고 强誘하였는데、公醫와 共生組合員 二名은 事實 內容을 仔細히 모르고捺印하였다 하며、또한 金氏의 말이 「貴地에서 反對만 없으면 朴勝彬氏가 巡廻演도 하겠다」고 하였으나、寧邊에서는 每週 定期 한글 講座가 있다 하니、金氏는 翌日에 歸去하였읍니다。

### (3) 肅川件 (延禧專門學校 學生 郭龍國氏 調査)

平南 肅川 驛前에 사는 그 勸誘에 應하여捺印한 韋秉植氏의 談——

「遊說者의 말이、總督府에 新綴字 反對運動을陳情하였더니、答하기를、너희들의 反對者數를 알수 없으니、反對者의 圖章을 많이 받아올것같으면、現在 採用的한 敎科書 綴字法을 廢止하여 주겠다 하였으니、圖章만 찍으면 된다 합니다」

### 〔附記〕 이에 對한 學務當局의 答辯——

二月 二十日 總督府 學務局 某氏를 面會하고、前記 한바와 같이 言明한 事實이 있는나고 물론즉、감작 놀라는 態度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斯界의 專門家들을 一堂에 모아서 그와 같은時  
日과 그와 같은 努力을 들며 成立된 改正 綴字  
案은 여간한 重大性을 가진 것이 아니오. 그것을 兒  
戲와 같이 輕輕히 翻覆한다는 것은 絶對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 所謂 建議書라는 것이 設使 우리  
손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既定方針은 微動도 아니할  
것이오. 그리고 그와 같은 捏造中傷的 言說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었다는 것이 萬一事實이라면 무슨 方法  
으로도든지 處分을 考慮하여야 하겠소 云云」(李熙昇記)  
以上은 다만 幾個의 例를 들며 지나지 아니함.

## 乙、奇恠 難澁한 그 記寫例와 統一 案과의 對照。

平易를 假裝하고 民衆을 欺瞞하며, 항상 統一案을 攻擊하는 그들이 主張하는 奇恠한 그 記寫法의 若干을 統一案의 實例와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1)은 反對者의 것, (2)은 統一案의 것〕

(1) 訓民正音의 完美性을 冒瀆하고, 아무正當한 學理의 根據도 없이 猥濫히 新文字新符號를 만들어 쓰는 例。

(1) 봄·바람(春風) (朴勝彬氏 著 朝鮮語學講義要

目 三五六頁)

(2) (봄·바람)

(1) 마·바람(午風) (同書 四頁)

(2) (마·바람)

(1) 안·밖(內外) (同書 四頁)

(2) (안·밖)

(1) 可·다(可) (同書 四頁)

(2) (可·다)

(1) 好·다, 好·고(好) (同書 五頁)

(2) (好·다, 好·고)

(1) 부르며, 부르시(呼) (全書 五頁)

(2) (부르며, 불러시)

(1) 쉬두 다른(他) 바람 (全書 一九頁)

(2) (쉬로 다른 바람)

(1) 泰山이 높다 하야도 하늘아래 모이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셀 理 업것마는,

사람이 커아나 오르고 山을 높다 하도다  
(全書 一九四頁)

(註) 그의 文法으로는 「하되」가 없고, 「외」가 없

으니, 詩調形까지 變해야 된다는 것이다)

(2) 泰山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것마는,

사람이 커아나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1) 도우시(助) (全書 六頁)

(2) (도우시)



(ㄱ) 녀름에는 太陽이 갓가워디오 (全書 一八一頁)  
 (ㄴ) (머름에는 太陽이 가까와지오)

(2) 儼然한 言語事實을 無視하고, 自家 獨特한 曲論에 依하여 마음대로 奇怪한 記法을 하는 例 (이것이 조선말이라고 할수 있을가?)

(ㄱ) 宋氏에게 보나이오(送) (全書 一六八頁)

(ㄴ) (宋氏에게 보내오)

(ㄱ) 꽃이 푸이오(花發) (全書 一九三頁)

(註) 그도 不得已「ㄷ, ㅈ, ㅊ, ㅌ, ㅍ」乃至「ㄸ」等 여러가지 새 바침을 使用하는데 注意)

(ㄴ) (꽃이 피오)

(ㄱ) 날이 가이다(晴)

(ㄴ) (날이 개다)

(ㄱ) 그사람이 굳세이다(強)

(ㄴ) (그 사람이 굳세다)

(ㄱ) 늘근 漁夫가 큰 고기를 잡아쓰오(已獲)

(ㄴ) (늘근 漁夫가 큰 고기를 잡았소) (全書 一九一頁)

(ㄱ) 기러기가 싸르히 나라가오(雁速飛去)

(ㄴ) (기러기가 빨리 날아가오) (全書 一八六頁)

(ㄱ) 先生의 性 나히오(怒) (全書 一八八頁)

(ㄴ) (先生이 성내오)

(ㄱ) 右와 같히 하면(如右) (全書 一一二頁)  
 (ㄴ) (右와 같이 하면)

(ㄱ) 달게 머거쓰오(甘食) (全書 一七三頁)

(ㄴ) (달게 먹었소)

(ㄱ) 비나눈이 오개쓰오(將降) (全書 一八六頁)

(ㄴ) (비나 눈이 오겠소)

(ㄱ) 꽃이 보기 도나게 푸여쓰오(花爛發)

(ㄴ) (꽃이 보기 좋게 피었소) (全書 一八七頁)

(ㄱ) 배를 江邊에 다흐히고(泊) (全書 一五四頁)

(ㄴ) (배를 江邊에 대고)

(ㄱ) 소나무(松木) (全書 三九頁)

(ㄴ) (소나무)

(ㄱ) 싸으님(令女息)

(ㄴ) (파님)

(ㄱ) 아으디마는(雖知)

(ㄴ) (아지마는)

(ㄱ) 부으니(吹하니) (全書 七四頁)

(ㄴ) (부니)

(ㄱ) 사으네(生하네) (全書 七四頁)

(ㄴ) (사네)

以下 略



反 對 者 側 의 이 모 저 모

필경 學生까지 煽動  
하기가

正音誌의 輕妄을 戒함  
이 윤 재

朝鮮語學雜誌란 美名을 붙이고 正音이라 題號한 소위 反對側의 機關誌는 겉으로는 學術研究를 標榜하나, 사실 그 內容을 들여다보면, 研究的 價値라고는 터럭끝만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句句節節이 詬辱悖說과 搆捏詆毀뿐으로, 다만 全紙面에 派閥的 鬪爭의 氣分이 橫溢하여, 그 무리들의 惡性心理가 如實히 發露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學術의 權威를 仗하여 正當한 論理와 眞摯한 信念으로 韓 한결같이 나아갈뿐인지라, 결코 么麼 한羣小의 喧噪에 귀기우렐바 아니니, 吾謹避之主義로 一向 置之度外하였다. 來後도도 우리는 그리할 작정이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이케와서 窮餘一策으로 한 奇拔의 新計劃을 捻出한것이 있으니,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 어린 學生들을 찾아다니며 그 들을 策動하여 한글 攪亂을 陰謀한術策이다. 여래까지 그 무리들의 兇오던 術策中 가장 鄙陋하고 賤劣한 짓이다. 그렇게 보고만 말것이 아니라, 그 裏面에는 最大 危險性을 가진 重大問題가 伏在하여 있음은 알겠다. 그러하다는 理由는 잠간 뒤로 밀고, 먼저 그 무리들의 陰謀와 나

의 調查한바를 말하겠다.  
正音(물론 異說派 雜誌) 第六號에 「市內中等學生巡訪記」라 題하고 韓東作氏를 내세워 쓴것인데, 그가 巡訪한 곳은 徽文高普, 中央高普, 中東, 大東商業, 公立高普, 徽新, 普成高普, 女子高普, 女子商業, 進明女高等 十校의 學生 十 三人이다. 먼저 五題의 短文을 불러주어 받아들게 하고, 다음에 覆面記者가 하듯이 몇마디 感想을 물어, 되는대로 적어치 學生의 말인것 같이 꾸미어 쓴것이다. 欺瞞도 欺瞞이려니와, 그 術策이 巧妙하다.  
다른 學校의 學生은 모르거니와, 내가 지금 關係하고 있는 中央高普와 徽新學校에 對하여는 나 個人의 名譽上 業務上에도 關係됨이 적다 못



하겠는고로, 何如間 그事實 如何나

한번 알아보기로 한것이 이 事實을 調査하는 動機다. 그따위 賤薄한 짓

더욱이 그런 無名한 한사람을 對象 할것인가. 차라리 一笑에 불이고 애

초에 問題삼지 않으려 하였으나, 調査하여본즉, 雜誌의 記事가 엄청나게

다들뿐더러, 學園에도 影響됨이 적지 아니한지라, 이에 부득이 그 調査한

바를 여기에 적기로 한것이다. 隱秘인지,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K生이니 S生이니 하는 隱名을 쓰는것부터 不正當한 짓이다. 莫顯乎

隱이라, 그를 嚴密히 調査한 결과, 그 숨기었던 學生의 本名이 다 判

明되었다. 그리하여 雜誌에 쏘인 感想文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는나고 불은즉, 다 자기의 말한것과는 사뭇 다르다 대

답하며, 글 뜻조차 모른다는 아이까지 있었다. 아이들더러 正音 記者

를 만났을 때에 꼭 말한대로 씌오 게 하였다. 이를 正音 記事와 對照

하야 아래에 적는다.

첫째 中央高普 第一學年生 S生이라 한것은 一學年 乙班 宋錫鎬인데,

正音에 쓴것——朝鮮語 時間에는 가끔 新綴字法으로 時間을 보내게 된다. 賃(坐) 賃(價) 이렇게 외이라고 합

니다. 試驗問題도 漢字를 써놓고 朝鮮語로 고쳐라고 하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一學年은 「한글」 雜誌를 每

月 全部 사보게 하는데, 모를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試驗때의 綴字法은 教科대로 써도 좋고 統一案대로 써도 좋

은데, 統一案에 맞게 쓰면 教科書대로 쓴것보다 點數가 많습니다. 宋錫鎬의 告白——우리 一年生은 試驗

때에 한글 綴字에서 五十點, 漢字 熟語(解釋하는것)에서 五十點, 이렇게 點數를 받습니다. 그이가 「한글」 雜誌를 보고, 「이 책은 學校에서 사보라는 것이

나」고 물기에 나는 「아니올시다. 사보고 싶으면 사보는것이니, 제 自由로 하는것이요」라고 말한것뿐입니다.

다음으로 中央高普 第二學年 K生이라 함은 二學年 甲班 金奎湜인데,

正音에 쓴것——別로 感想이라고 했을니까. 어려운것뿐입니다. 그리고 文法規則이 整然치를 못하여 「マル暗記」 할것이 많습니다. 例하면 지금 書取한

중에 있는 「미답다」 「민었다」 「미답이」 등은 지금 가르쳐주시니 말이지, 「마춤법 통일안」이 그렇게 된줄은 몰랐습니다. 金奎湜의 告白——저는 지금까지 마

춤법 통일안을 배우지 못하였지마는, 당신 말과 같이 옛날 쓰던것보다는 좀 어렵고 또 따루 외야 할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쓴 글 가운데 「미답이」 「민었다」 같은 말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니 알았지, 마춤법 통일안이 이렇게 된줄은 몰랐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倣新學校 第二學年 K生이라 함은 二學年 乙組 金得熙인데,

正音에 쓴것——어떤 때는 바침을 쓸 때불이고 어떤 때는 내려다 쓰는지 헛

틀어서 쓸수가 없어요. 저이는 第一學년부터 新綴字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여 씌니다. 一學年때에 新綴字法으로 試驗을 본

得熙인데, 正音에 쓴것——어떤 때는 바침을 쓸 때불이고 어떤 때는 내려다 쓰는지 헛틀어서 쓸수가 없어요. 저이는 第一學년부터 新綴字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여 씌니다. 一學年때에 新綴字法으로 試驗을 본

得熙인데, 正音에 쓴것——어떤 때는 바침을 쓸 때불이고 어떤 때는 내려다 쓰는지 헛틀어서 쓸수가 없어요. 저이는 第一學년부터 新綴字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여 씌니다. 一學年때에 新綴字法으로 試驗을 본

得熙인데, 正音에 쓴것——어떤 때는 바침을 쓸 때불이고 어떤 때는 내려다 쓰는지 헛틀어서 쓸수가 없어요. 저이는 第一學년부터 新綴字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여 씌니다. 一學年때에 新綴字法으로 試驗을 본

得熙인데, 正音에 쓴것——어떤 때는 바침을 쓸 때불이고 어떤 때는 내려다 쓰는지 헛틀어서 쓸수가 없어요. 저이는 第一學년부터 新綴字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여 씌니다. 一學年때에 新綴字法으로 試驗을 본

得熙인데, 正音에 쓴것——어떤 때는 바침을 쓸 때불이고 어떤 때는 내려다 쓰는지 헛틀어서 쓸수가 없어요. 저이는 第一學년부터 新綴字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結果 全部가 丙이었습니다。지금도 모르지만요。何如든 全生徒가 어렵다고 떠들니다。

金得熙의 告白—— 어느날 어떤이가 와서(뒤에 알고보니 韓東作氏) 자기는 語學研究會 사람이라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부르는대로 쓰라고 하기에 그대로 써 주었습니다。쓴것을 보고 왜 이렇게 썼는가 하기에, 대답할수가 없어서 이것이 어렵것은 바침을 올려붙이고 어렵것은 내려다 쓰는데 이런것은 좀 쓰기 힘들다 하였습니다。그러면 언제부터 新綴字를 배우는가 하기에, 一學年 二學期때부터 배운다고 하였더니, 처음 배울적에 어렵지 않든가 하기에, 입때까지 그전것만 익혀온 관계로 처음에는 좀 어렵것지마는, 차차 배우니까 지금와서는 아주 괜찮다고 하였습니다。試驗에는 어떻하였는가 하기에, 내가 처음으로 新綴字 배울 때에는 아따 丙인듯 합니다。(무론 全班 學生을 말한 것은 아님) 또 그런데 學生들이 新綴字法이 어렵다고 떠들지 않든가 하기에, 一學年 때에는 좀 어렵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아니합니다。

以上과 같이 正音에 記載된 事實과 學生의 告白한것과를 比較하여보면, 正音의 記事가 얼마나 虛偽捏造한 것인지 넉넉히 살필수 있으며, 이數三人의 事實을 밀우어 全部가 다 이와 같을것은 明若觀火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구래어 그 黑白을 가리어 그들을 筆誅하려는것이 아니다。그러나 그 索隱行恠의 알미운 짓은 그들의 常習의 버릇이라 그만 두기로 하고, 어린 아이들을 煽動하여 상태에 큰 禍源을 장만하려는 그 輕妄한 行動에 對하여는 한번 警戒함이 없지 못할것이다。이제 간단히 몇가지만 들어 말하리라。

一、學生들도 하여금 朝鮮語 學科에 對한 輕妄心을 일으키게 하려는것。아이들의 마음은 가장 天真한지라, 가르치면 가르치는대로 指導하면 指導하는대로 따르는것이다。만약 學校에서 先生에게 배운것을 家庭 혹 社會에서 指導하는 방식이 그와 背馳되면 어린 마음에 점점 懷疑心을 일으키어 先

生이 가르친것에 대하여 輕侮心을 내는 惡影響을 招來하기 쉬우리니, 이것은 教育上 大禁物이다。그런함에도不拘하고 그들은 漫然히 아이들에게 學校에서 배운 朝鮮語科에 對하여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批評을 더하는 따위는 확실히 學生의 머릿속에 朝鮮語科에 對한 輕侮心을 注入하려는 그릇된 생각이다。그 輕妄이 太甚하다。

二、學生으로 하여금 教師에게 對하여 反感心을 일으키게 하려는것。學生들이 教師에게 對하여 가장 憎惡하는바는 試驗制度로 因함이다。그러므로 요새 學園에 種種 不祥事가 일어나는것도 그 原因은 太半이 여기에 있다 한다。그들은 機敏하게도 이것을 잘 利用하려고 든것이다。그러하여 아이들에게 반듯이 朝鮮語試驗을 어떻게 하더냐, 또 試驗本 結果成績이 어떻더냐고 물은것이다。만일 아이들의 입에서 朝鮮語 成績이 나쁘다 하는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욱 어렵고야 그렇겠나 하



아、隱然히 先生 排斥할 惡感心을 暗示하였다。 이것은 아이들의 告白한 것으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는 成功을 못한 것이 매우 가까울 일이다。 마지막에는 一般 學生界에 衝動을 줄 心事로 아이들이 陳述하지 아니한 事實까지 捏造하여 「一學年 때 試驗本 結果 全部 丙이었다」(金得熙의 말이다 한 것) 라고까지 적어서 學生들로 하여금 무한한 恐怖心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는 全部 丙이라 하는데 놀래어 곧 學籍簿을 뒤적보았던바、 그 學級 四十七名中 甲(九十點 以上)이 九人、乙(六十點 以上)이 三十人이요、丙(四十點 以上)은 中間 補缺入學者 但 一人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이(金得熙)의 朝鮮語 成績은 一、二、三學期가 모두 七十點 以上 곧 乙이며、정작 丙은 英語 實業等 數科目에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와같이 大膽하게도 事實無根의 記事를 함부로 적어 世人을 眩惑시키

는 一邊、學生으로 하여금 先生 排斥의 惡心을 助長하여 後日 큰 禍端을 釀成하려는 것은 매우 輕妄한 짓이다。 三、學生으로 하여금 教科書에 對한 厭忌心을 내게 하려는 것。 學生에게 教科書의 缺點을 자주 말하면、 자연 教科書를 不信用하여 複習을 게을리하는 弊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學生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教科書에 對한 尊敬心을 가지게 하는 것이 最을 일이다。 그들은 新綴字로 된 教科書에 對하여 무한히 不滿을 품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暗暗裏에 教科書를 不信用하게 하는 思想을 鼓吹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번 書取의 課題를 高等普通學校 朝鮮語讀本 卷一 十六頁 및 十八頁에서 取하여、 아이들에게 書取시켜、 어찌다가 몇군대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指摘하여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것을 배우느냐 하는 毒嘴를 放하여 아이들의 머리속에 教科書에 對한 厭

忌心을 注射하려는 것으로서 殊히 明證이 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그들이 書取한 것을 가지고 錯誤分類統計表란 것을 만들고 잘못 쓴 것과 바르게 쓴 것을 비교하여 놓은 것이다。 무론 아이들의 教科書 標準의 綴字에 對하여 잘못 쓴 것이 많을 것은 정한 일이다。 과연 一學年 때의 朝鮮語 程度를 보면 잘못된다。 언케인가 내가 一學年 一學期初에 한번 書取를 시켜 보았던니、 그야말로 金剛山 萬物草 以上の 形形色色이다。 심지어 이렇게 쓴 아이까지 있었다。 「내가 오늘이 학교에 입학할 하였으니……」라 쓴 것을 「니카요닐이 학교고 이파케치니」로 쓴 것이다。 다 가치 普通學校에서 같은 책으로(무론 舊綴字로 된 것) 배웠건만、 왜 그다지 千差萬別로 쓸가。 왜 책에서 배운대로 쓰지 못할가? 여기에 對하여는 原因이 없는 것도 아니다。 張遼를 避하여 그만두기로 하자。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잘 아는 조선말이라 하여 별로 關心도 하지 않거니와、



朝鮮語 教授時數가 一週日 겨우 一  
 時間、게다가 때때로 눈에 띄우는  
 新聞 雜誌 온갖 책들이 모두 各樣  
 不同으로 되는 이 現象下에서 겨우  
 一二年동안 배워가지고 그들의 書  
 取한 그만큼이라도 쓴것은 과연 大  
 大的 進步라고 아니할수 없다。朝  
 鮮語 말고 英語나 數學이나 理科나  
 其他 各科에 對하여 아이들에게 그  
 와 같이 한번 물어보라。그렇게 많  
 은 時間으로 充足히 배우는것이 언  
 는、千篇一律로 꼭꼭 맞게 다 잘 알  
 줄 아느냐。무론 朝鮮語 書取 以上  
 으로 들릴것이 많을것이다。그렇다  
 고 그 科目을 다 어려운것이라 하  
 여 撤廢하기로 主張할것이냐。그들은  
 또 六十歲 老婦人에게까지 書取시켜  
 「이슬비줄」을 「이슬비줄」로  
 「움직이는것을」을 「움직이는것을」로  
 「짓밟힌」을 「짓밟힌」으로  
 「민었다」를 「밧밧다」로  
 쓴것을 절절히 嘆服하며 글은 이렇

렇게 외야 된다고 하니, 대저 그무  
 슌 主旨인가。그들은 教科書 綴字  
 를 고치게 하려고當局에 提呈할 建  
 議書에 圖章을 받으려 地方遊說하는  
 것으로외 外的活動을 하고 中等學生  
 을 巡訪하는것으로외 內的活動을 하  
 는 그 技巧한 術策은 무던히 組織  
 的이라 아니할수 없다。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煽動하는 行動은 더 말할  
 수 없이 輕妄한 짓이다。  
 이밖에도 二三個 條項을 들어 더  
 말할것도 있으나, 쓸데없는 이따위것  
 을 가지고 공연히 紙面만 허비하게  
 되는것이 아까워서 그만두기로 하거  
 니와, 그들은 이번 輕妄한 舉措를 스  
 스로 뒤우치고 한번 크게 反省이 있  
 기를 바라는것이다。혹시 好戰者의  
 癖이 있는 그들이, 옳다 하나 얻어  
 만났다 하고 다시 무슨 辨駁이 있  
 을지라도, 나의 말할것은 오직 여기  
 에 그치고 만다。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는자가 아니  
 라, 부득이 할말은 알라。

**地方遊說의 愚**  
 語文運動? 政治運動?  
 최 현 배

自古以來로 東西洋 어느 社會를 물  
 론하고 새로운 改革運動이 必然的으  
 로 생김에 당하여, 그 社會의 舊勢  
 力層에서 특히 그 進取的 態度를 취  
 하지 못하는 有力한 退嬰分子的 反  
 抗運動이 있음은 歷史的事實이 이를  
 證明하는바 이어나와, 오늘날 朝鮮社會  
 의 한글운동에 對하여서도 또한 退  
 嬰的 舊勢力的 反動이 없지 아니하  
 다。그러나 우리들의 時代精神에 符  
 合한 한글 科學化運動이 滔滔한 形  
 勢로 新進靑年의 힘으로 말미암아 日  
 就月將함을 到底히 막아낼수 없음을  
 그네들로서도 看破하지 않을수 없었  
 다。그리하여 尙尙 卑劣한 詬辱의 言  
 辭로써 그 敗者의 心境을 自慰하더



나、近者에 이르러서는 그 最後의 發惡的 術策으로、어떤 일없는 사람도 앞잡이로 내세워서、某地方으로 돌아다니면서、한글反對의 圖章을 받기爲하야、혹은 交際手段으로、혹은 孟浪한 言辭로써 地方人士를 眩惑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니、이는 참可嘆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재로 그 어떤 일없는 사람 自身이 이 文化運動을 한낱의、自己의 存在를 表彰하려는、政治運動으로 바뀌쓰고 나선 것부터가 틀렸으며、들재로 이 한글의 科學化的 可否를 一般 衆人의 投票數로써 決定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斤斤의 物理學說과 아인슈타인의 物理學說과의 可否를 大衆의 投票로써 決定하려는 것과 같으며、또는 某專門家가 數年을 虛費하야 세는 都市整理計劃案을 그 都市住民——특히 그 새 計劃으로 말미암아 그 傳來의 따듯하던 보급자 리가 헐리는 運命에 逢着한 그 住

民의 投票도써 그 可否를 決하려는 것과 같으니、어찌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있으랴? 만약 이러한 方法으로써 朝鮮社會의 諸般 事務의 方向을 決定한다면、오늘의 官立 醫科大學과 官公私立 醫學專門學校 같은 것은 當然히 廢止하고 관수나 무당의 하고를 設立함이 可할 것이다。 왜 그리냐 하면、오늘의 全朝鮮 사람—특히 높은 男女에게 그 信任의 程度의 優劣을 그 投票數로써 決定할 것 같으면 무당 관수 信任의 投票가 斷然히 優勢를 차지할 것은 조금도 疑心없는 的確한 事實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非科學的의 乃至 非文明的 處置라 아니할 수 있으랴? 그뿐 아니라、이러한 投票의 數란 것이 能하 正直性을 維持하지 못함은 역시 東西洋 許多한 事實이 이를 證明하고 남는바임을 어찌하라? 셋재로 그 앞잡이로 나선 사람이 그 多數의 圖章을 募集하기 爲하야 自家의 奇怪罔測의 難處는 全然

히 隱蔽하고、다만 한글 反對를 衝動하기 爲主한 語不成說의 曲論을 弄함은 여기에 一一이 摘發할 餘暇가 없거니와、다만 한두가지만을 들이 말하자면 이러한 것이 있다。 곧 「한글 맞춤법 통일안(朝鮮語綴字法 統一案)은 너무도 서울 中心的으로 되어서 당신네의 地方말이 아주 無視를 받았으니、이것을 坐視할 수 없지 않소?」 고。 今番에 그네들이 遊說를 시작한 地方은 平安道가 中心인 모양이다。 이케 그네들이 먼저 平安道 地方을 選擇한 까닭과 그 經過를 상고하면 이리하다。 곧 한글 통일안에 서는 大개 標準語를 現在의 서울말로써 하야 純朝鮮語나 漢字語를 勿論하고 現在의 서울말에 서의 發音대로 取하였다。 그 래서 이를테면 「天地」를 「런디」라 하지 아니하고 「천지」로 하며、「電車」는 「던차」라 아니하고 「천차」로 하며、「勿去」를 「가지 말라」라 하고 「가디 말라」로 아니하였다。 이것이 平安



道人士의 方言의 語感에 對하여는 多  
 少 不滿의 感이 혹 없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나 한 言語의 統一을 企하려고 하면  
 무래도 그 나라 안에서 政治文化交  
 通等 中心地方의 말도 외 標準語를 삼  
 아 그 밖의 方言은 얼마큼 犧牲되  
 지 않을 수 없음은 天下共通의 事勢  
 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常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만 自己 生長의 地  
 方語가 無視되었다고 言語統一을 反  
 對하려는 것이 없음도 또한 事實이다.  
 그런데 我 根本부터 우리의 한글은  
 동에 反對하는 그것으로써 本目的을  
 삼는 一派에서는 이것을 엿보고서 일  
 으부터 비틀어진 理論으로써 「런디」  
 「연차」 「가디 말라」 도쳐 그 綴字法  
 을 삼아 그 말의 보바다인 平安道  
 의 사람에게 秋波를 보내더니, 이케  
 와서는 그 秋波의 報酬로 그 圖章  
 을 사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無根  
 한 소리가 아니라, 그네들의 素主  
 張을 적어 보신이는 누구든지 明白  
 히 看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

리는 確實히 믿노니, 平安道の 教養  
 있는 人士가 결코 이러한 愚弄하는  
 衝動的 言辭에 同意하지 아니 할 것이  
 또한 明白한 理致이다.

또 스즈근그들의 새 바침을 씀은  
 그네들이나 우리나라 조금도 다름이 없  
 을뿐 아니라 그네들이 심지어 「시」의  
 바침까지 씀은 確實한 事實이다.  
 (公開狀 別記 參照)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地方 遊說 某氏의 陳述하는 理由는  
 이러한 바침을 한글 통일안에서 採用  
 함이 不可하다, 至難하다 하더라 하  
 니, 이는 참 自家撞着的 絶頂이라 아  
 니할 수 없는 것이니, 그네의 目的이  
 眞正한 文化意識에서 나온 朝鮮語 整  
 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累百  
 年 傳統的 黨爭 心理에서 되어가는 한  
 글운동을 阻止하여, 自己 一個人 혹은  
 一黨의 功名을 세워보자는 데에 있음  
 을 明白히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多數의 捺印을 얻기爲하여  
 上記와 같은 自家撞着的 似而非 理論  
 을 弄하여 地方 人士를 眩惑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地方에 가서는 심지어  
 「우리 한글 反對者가 總督府에 反  
 對陳情을 한즉, 反對者의 도장만 많  
 이 받아들일 것 같으면, 現今 採用한 新  
 綴字法을 廢止하여, 卒했다 하였다」  
 고까지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學務當  
 局者에게 質하여서 「그 事實 아님을 確  
 認하였다. (公開狀 別記 參考)」  
 地方 人士가 이러한 孟浪한 言辭에  
 盲從하지 아니 할 것은 「우리가 特히  
 부락할 것도 없거니와, 大體 이러한 言  
 辭로써 한글 科學化의 舉族的 文化  
 運動을 中傷하려는 참 可嘆할 心事  
 라 아니할 수 없다.  
 要컨대 한글운동은 一種의 文化運  
 動이요, 科學運動이다. 그可否는 모  
 름지기 學問的으로 究明 論證하여야  
 할 것은 다시 嗚嗚할 必要가 없는 것  
 이다. 그런데 我네들이 오직 正當한  
 學理的 基礎 위에서 眞理를 찾기는 있  
 고, 무슨 政治運動이나 하는 것처럼  
 地方을 遊說하는 妄學에 나간 것은 참  
 어리석고도 가 없다 아니할 수 없다.



朴勝彬氏에게

合作交渉의 顛末

李克魯

年來에 朝鮮語學會에서 朝鮮語文統  
一運動에 對하여 힘써오는 것은 世人  
이 다 아는 바와 같고, 이제 여기에 對  
하여 朴勝彬氏와 前後 數次 交渉한 顛  
末을 말하고저 한다.

이 交渉은 언케나 내가 하였던 것  
이다. 우리 朝鮮語學會에서는 語文統  
一의 慎重한 態度를 가지기 爲하여  
언케든지 큰 일이 있으면, 會員外의  
各方面 人士를 委員으로 推薦하여 討  
議 協定하는 뜻으로 語學研究에 直接  
힘쓰지 아니하는 人士와도 함께 協  
議하거나, 하물며 朝鮮語學을 오래 동  
안 研究한다는 분이야 물론 連絡하며  
協議할 것은 常識으로도 알 일이다.  
그런데 나는 數年前 朝鮮語學會에  
서 朝鮮語 綴字法 統一案을 만들 準

備로 자주 討議할 때에, 朴勝彬氏를  
訪問하고 함께 힘쓰시기를 懇切히 請  
하였으나, 그는 여러가지 말을 하다  
가, 마지막에 말하기를, 「朝鮮語學會  
會員은 周時經氏의 門徒인데, 내가 거  
기에 갔다가는 朴說(自學說)이 周說  
(周時經學說)에 홀닥 녹아버릴 것이니,  
자기를 가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朴勝彬氏가 지은 朝鮮語講義  
要旨에 「朴說에 曰」「周說에 曰」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서도, 氏가 普  
通談話中에도 朴說, 周說을 얼마나 많  
이 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宗  
派心理를 엿본 나는 그때로부터 「그만  
들시다」라는 한마디로 꿈고, 다시는 그  
問題에 對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서 數年 지나오다가, 今年 一  
월에 朝鮮語標準語查定委員會를 溫陽  
溫泉에서 열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  
번 氏를 찾았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事情을 말하고 委員이 되기를 請하며,  
그는 말하기를, 「첫째는 名詞 部分만  
討議할 일, 둘째는 討議案 全體를 먼

키 보이어 달라」하였다. 이것은 곧  
名詞 處理는 比較的으로 같은 點  
이 많다는 뜻이며, 討議案 全體를 먼  
져 보고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內容  
을 다 알고난 뒤에 協同한다든지 아  
니한다든지 判斷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對答하기를 「名  
詞 部分만 한다는 것은 到底히 아니 될  
것이니, 말 全體를 處理하여야 될 것  
인데 어찌 한 部分만 討議하리오,  
그리고 討議案 全體를 먼저 보여 달  
라 하나, 그것은 準備가 다 되거나  
하면 곧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  
나 事實인즉 그 討議案은 오래동안  
準備하여 왔으나, 會議中에도 일변 整  
理에 奔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討議案 全體를 朴氏에게 먼저 보일 수  
있었으랴. 會議場所 溫陽溫泉에로 떠  
나기 即前 다시 그에게 함께 떠나기를  
懇請하였으나, 굳이 拒絕하고 말았다.  
그러서 氏는 絶對不合作을 高調하고  
언케나 唯我獨尊이란 意識으로 따두  
놀기를 좋아하신다.



# 「訓民正音原本」에

## 싸고도는 문제

蜜 啞 生

임금께서 지으시고 國力으로 頒布한 訓民正音이 그 原本의 世間에 傳함이 없음은 實로 遺憾千萬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朝鮮語研究會(朝鮮語學會의 前稱)에서 廣求한 結果, 光文會의 所藏인 月印千江之曲 卷首에 合付되어 있는 木刻版과 魚允迪氏의 所藏인 宮內省藏本の 謄寫本과 朴勝彬氏의 所藏인 單行本 訓民正音 木刻版과의 三種을 얻어, 各本の 得失을 詳細히 考察하여, 朴氏本을 主로 하고 다른 二本을 參酌하여, 그 第一葉을 原形으로 還元시켜서, 소위 訓民正音의 原本을 寫眞版으로 내기는, 昭和 二年 二月 八日에 우리 會의 機關誌「한글」의 創

刊號를 別적으로 그 附錄으로 한 것이 었다. 그때에 그 第一葉을 還元시키기에 對한 根據를 보이기 爲하야, 朴氏本의 第一葉과 光文會本의 第一葉의 寫眞도 그 뒤끝에 添附하였다.

그리하야 이「한글」創刊號 數千部가 널리 朝鮮 識者階級에 퍼진 것은 숨김없는 事實이다. (그 뒤에 다시 單行本으로까지 刊行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그 寫眞本을 別적으로 그 考證을 말하야 朴氏本이 眞本에 가까운 것임을 言明하였더니라.

.....

이제 생각하건대, 朴氏가 우리에게 그 책을 빌려 주신 것은 물론 고마우신 일이지마는, 그가 自己 所藏의 책이 우리의 손으로 말미암아 現在本 가운데서 가장 眞本에 가까운 것이란 말이 宣明됨을 볼 때에, 一邊으로는 無限의 榮譽의 기쁨을 느끼는 同時에, 他邊으로는 그것을 수감계 우리에게 그 寫眞出版을 許與한 것이 또 한 가지 없이 後悔스러웠던 것이다. 즉

어도 朝鮮에서 唯一無二한 眞本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감계도 이것을 남의 學的 功勞에 바쳐버린 自己의 不察을 스스로 恨嘆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元來 意志가 굳은인 朴氏는 이 噬臍莫及의 失手를 기어코 回復하야 眞實獨有의 譽榮을 專擅하는 同時에, 또 그것을 미끼로 하여 따르한 學派를 樹立하야 世人이 흔히 尊崇하는 周時經 先生의 功績을 壓倒할만한 功을 거두어 보겠다는 決心이 남모르게 그의 가슴에 動하였다. 그래서 그 첫 着手로 우리에게 「訓民正音 原本」의 銅板(寫眞版)을 돌려주기를 願하였으나, 우리로서 遽然히 許諾하지 아니할 것을 觀破한 그는 聘請 돈으로 買收하기를 請하였다. 그러나 그의 要求가 正當한 學者의 態度가 아님을 推察한 우리는 斷乎 그를 拒絶하였다.

.....

이 巧妙한 交渉에 失敗한 그는 눈



물을 더듬고 분함을 참고 얼마동안  
沈黙을 지키더니, 卞訓民正音 한글  
版이 나온지 五年만인 昭和七年五  
月十四日の 東亞日報 紙上에 大字  
特書로써

「世宗大王時 頒布版、訓民正音 原本  
朴勝彬氏 書庫中에서 發見」

이란 驚駭的 題目을 걸고서, 그 無  
盡한 書庫中에서 인제 처음으로 偶  
然히 發見된것 같이 卞訓民正音을 羅  
列하여, 그것이 世宗 當時의 訓民正  
音 原本이 틀림없음 (이것은 우리의  
한글 版本에서 배운 말이지만, 그것  
이 과연 眞本임의 的確하나 함에 對  
하여는 아직 疑心할 餘地 있음)을  
자랑하고, 다시

「訓民正音 原本、寫眞版 刊行、朝鮮  
語學研究會、啓明俱樂部 合力」

이란 커다란 題目을 걸고서, 이 慶賀  
할만한 貴重한 發見本을 刊行함으로  
말미암아 朝鮮言文 研究의

「漠然하여 曖昧한 學說의 一掃되  
고, 그 正確合理의 眞實인 基因

이 될것으로 信賴되는 點에 있어서  
얼마나 큰 意義와 使命을 가질것  
인지 알수 있는것이」  
란 記事를 적어 놓았다.

이것이 朴氏의 功名心이 研究해낸  
最後의 方策이요, 珍奇의 金바진「發  
見」이다. 그러나 그는 남이 五年前  
에 이미 印刷發行하였다는 事實은 略  
적 묻어버리고 自家의 榮譽에만 滿足  
함이 學의 良心으로 能히 할 일이라.

.....

朴氏는 이「貴重한 發見」을 新聞  
紙上에 發表하기 前에 數次 自費로  
外料亭의 盛宴을 베풀어가면서 親  
知를 招請하여 自家의 研究를 發表  
하고, 그 前年 卽 昭和六年(一九三  
一)十二月十日에는 드디어 朝鮮語  
學研究會란 團體를 組織하였다. 그  
러자 이 偶然의 發見으로 하여금 더  
욱 그 宿緣의 眞實은 隱然히 그 會  
員에게 暗示하여 주었다.

.....

昭和七年 八月에 豫定대로 朴氏

의 訓民正音의 寫眞版이 發行되었는  
데, 그 책의 첫머리에 朴勝彬氏가 스  
스로 重刊序를 대략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곧

「어두운 밤에는 幽靈이 있다. 太  
陽이 솟은 다음에 보면 혹 나루  
이요 혹 돌이요 혹 꽃떨기. 나라  
..... 近來에 訓民正音의 論解에 關  
하여 荒誕誤謬의 說이 流行되는 일  
이 자못 많은은 이 글에 當한 考  
察이 오히려 昏暗中에 있음에 因  
함이라, 이제 이 冊이 刊行됨에 依  
하여 어두운 밤에 생각하던 幽靈  
은 살아지고 光明한 햇빛에 비추  
이는 燦爛한 꽃떨기가 나타나리로  
다.....」

여기에서 우리들을 確實히 도카비  
(幽靈)이라 불렀고, 아직도 訓民正音  
原本도 보지 못하고(!) 떠드는 우  
리의 學說이란것은 荒唐無稽하여 이  
새로「發見刊行」되는 訓民正音 原本  
의 太陽 앞에 幽靈살이 살아진다고  
得意의 咀文을 朗讀한것이다. 누가



과면 幽靈인지? 이것의 判斷은 第三者에게 맡길수 밖에 없거니와, 이렇기까지 하여서 남을 埋葬——아니 火葬(살아지고)하고, 自家의 功名 높이를 세울 필요가 무엇일까? 적어도 學問界에서. 아마도 이런 짓은 陰惡한 政治家가 혹 쓰는 手段인지도 모르겠다.

.....

이어서 그해 九月에 「朝鮮語學研究會 趣旨書」가 發表되었는데, 우리들의 學說을 「牽強的 幻影的 論法」 「麻痺의 病菌」이라 하여, 그 卑劣한 心情을 自慰하여 놓고, 다시 나아가 「大衆이 切實히 要求하는 事物은 반듯이 出現하는 것이라, 朴勝彬先生이 過去 二十餘年間 精力을 傾注하여 斯學을 研鑽한 結果」는 宏壯히도 훌륭한 것인 고로

「朴先生의 學說을 基礎로 하여 朝鮮語學研究會가 組織된 것이라」 하야, 그 「어마어마한 讚辭가 그로 하여금 飛將沖天의 氣勢를 스스로 일게

하였다.

그리하야 그 研究團體란 것이 생기자, 곧 그 研究의 終極的 結論을 綱領으로 쓰(冠)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世界에서도 類例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研究團體」는 眞正한 意味에서 學術研究團體가 아니라, 法律家의 本色인 政治團體라 함이 차라리 옳을 것이다.

.....

그리고 昭和 九年 九月에 發行的인 그들의 機關誌 卷頭言에

「本誌에 掲載한 訓民正音은 朴勝彬先生의 秘藏에 屬한 것이니, ..... 이 책은 어떻게 保存되었는가? 나는 알았노니, 이 책은..... 上天이 大救主를 보냈는데 반듯이 무슨 祥徵이 있을 것이다. 그 祥徵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孔壁의 遺經이 西漢의 群儒를 기다렸나니, 朴先生이 世上에 出現함에 어찌 한권의 訓民正音이 없을 가보나」

하야 「朴勝彬先生」을 學派의 首領으로

로보다 차라리 한결음 나아가 神聖한 宗教主로까지 떠받들어 올림을 보겠다. 이 卷頭言은 과연 누구의 所作인지 알수 없거니와, 朴氏 自身이 지은 「朝鮮語學講義要旨」란 책을 들춰보면, 근대군대 「周說」에 對하여 「朴說」을 對立시켜 놓고, 「周說」은 틀렸고 「朴說」이 옳다고 떠들어 놓았다.

.....

이와 같이 近親者流의 推戴裡에 學派의 首領으로 君臨한 朴先生은 홀로 霸氣滿滿하야 天上天下 惟我獨尊의 自負心을 견잡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야 우리들이 數次 共同合作의 提言함에 對하여, 「당신네는 周派의 同한다면 朴派가 消滅되지 않겠느냐」하고, 이를 들지 아니하고 如前히 唯我獨尊의 氣焰을 뽐내고 있었다.

.....



우리는 朴勝彬氏가 國語文研究도서에서 原本具의 政治的 衝動的 幾分이라도 滿足시키지 않을수 없는 朝鮮社會의 現實에 鑑하여, 朴氏의 不遇時를 매우 同情하여 마지 아니하는 자 이어나와, 이러한 團體가 學術研究團體란 이름으로 行世하는 바람에 朝鮮의 學術界가 조금이라도 그 害毒을 받게 될가를 念慮하는 자이다.

.....

과연이다. 本色은 드디어 들어나고 말았다. 한글 反對를 學理도써 能히 할수 없음을 看破한 그네들은 地方遊說를 하여, 地方人士의 圖章을 받는 한결으로 朴氏를 請하여 講習會를 열라는 勸誘를 한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에서 唯一無二의 學派의 首領이 되려는 그 意圖에는 과연 놀람사아 니할수 없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이는 京城 中央印書館 發行의 訓民正音原本 序文을 한번 읽으시기를 바란다.

## 訓民正音의 原本을 아 직 얻어보지 못하였다

權 惠 奎

대거 訓民正音에 對하여 여러가지로 궁금한것은 原本의 正音을 얻어보지 못하는것이니, 우선 지금의 訓民正音의 原本이라고 떠드는것이 두가지로 「이것이 그른것이니, 이것이 옳는것이니, 돈까지 들여가며 야단이 지」라는, 訓民正音의 字數가 二十八字라 分明히 하였는데, 原本이란 그 책들 속에는 唯 二十八字가 더되는가. 그러면 몇자가 더 있는가. 崔世珍의 四聲通解 下卷 附錄에 正音當時의 協贊者로 遼東을 門앞 다니듯 해가며, 滿洲 支那 蒙古의 音韻 語法을 調査하며 整理하기에 心身을 바치고 남기지 아니한 申叔舟 등의 四聲通放 凡例가 있으며, 이 凡例의 一條에

我國齒聲入스스 在齒頭整齒之間於

訓民正音 無齒形整齒之別 今以齒頭爲入스스 以正齒爲入스스 以別之

라 하였는데, 에케 그 原本이란 正音책에는 申叔舟 같은이가 「訓民正音에는 없다」한 齒頭整齒의 여섯字가 더 있으니, (唇輕音은 말고도) 이것은 어찌 解釋할 것인가. 이 原本이란 本들이 頒布當時의 그 本이 아니라, 뒤에 版本으로 翫머리에 世宗御製란 文字나 整齒字들 더한 것이나 가 모두 뒤에 「맨들어 넣고 더하고」한것으로 原本이 아닌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혹은 訓民正音 곧 조천말 音에는 齒頭整齒가 없다는 말이다. 한것이 아닌가 하겠지마는, 그도 그렇다 못할것이 그 아래에 今以齒頭 爲入 以整齒爲入 以別之의 마디는 어찌 解釋할 것이라. 아무튼 나는 訓民正音 原本을 못보았다. 이 訓民正音에 對하여는 다시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으려나와, 나는 訓民正音 原本을 보았으면 참 좋겠다.



# 손 과 기 자

**손** ○ 조천어학회는 학술을 연구하는  
 점잖은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  
 새 신문은 보니까, 무슨 공개장이  
 니 청명서이니 하는 것을 발표하였  
 다지요? 대체 그게 무슨 짓들이  
 요?

**기자** ○ 과연 그러한 책망을 들을만  
 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부  
 득이한 일입니다.

**손** ○ 그런데 신문만 보아서 그 내  
 평을 잘 알수 없는데, 반대자측에  
 서 또 어찌하였다고, 그렇게 야단  
 들이요?

**기자** ○ 학술의 연구는 자유이니, 그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것만큼 주장  
 하는바도 다를것입니다. 자기의 주  
 장이 진리라고 믿거든 어디까지든  
 지 그대로만 향하여 나아가리니,  
 그것이 확실하진리일것 같으면, 그  
 세상이 다 그것을 따를것이요, 그

렇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할것입  
 니다. 그러므로 학자는 오직 경근한  
 태도도 연구에만 충실히 함이 옳은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세력으로써 남을 압박하거나 권출  
 로써 여력을 매수하는것으로 그들  
 의 주장을 신상하려합니다. 좀 자  
 세히 말하면, 그들의 잡지 청음에는  
 호마다 남을 휘방하는 욕설도만 채  
 웠으며, 또 어문 연구에는 아무 관  
 계도 없는 모모 인사들을 모아 별  
 동대를 지어 반대의 기세를 도우  
 려 하며, 또 사람을 지방으로 보  
 내어 아무 이해(理解)도 못하는 이  
 들을 유인하여 한글 반대하는 글  
 에 도장을 받으려 다니며, 어린 학  
 생들을 책동하는등 극히 천박한 행  
 동이 많습니다. 이 몇가지 사실  
 만 보드라도 그들은 이렇듯 당파  
 적 심리가 발발하여, 원연히 청  
 치운동자의 행색이지, 학술 연구  
 의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 ○ 그들의 천박한 행동에는 제삼  
 자인 우리로도 미상볼 미워하지 아  
 니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칭 박  
 설(朴說)이니 주철(周說)이니, 또  
 는 청음파(正音派)이니 무엇이니 하  
 는것을 보아도 무슨 당파를 만들려  
 는것 같아요. 그것이 더욱 얽밟습디  
 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상대를 보  
 면, 한글 철자법의 날도 발날하여  
 신문이나 잡지나 서적이나 다 신  
 철자로 쓰지 아니한것이 거의 없고  
 학교 교과서까지 그렇게 되어, 어  
 떠한 권력으로도 이를 막을수 없  
 는 현상이니, 대체는 이미 청하여  
 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측으  
 로 말하면, 아주 무세무력하여 세  
 상에 존재가 없거든, 제야 무슨  
 짓을 하건 가만히 내버려 두드라  
 도 필경은 불멸이 자멸할것이인데,  
 당신들이 그들을 상대로 하여 차  
 움하는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일  
 일가요? 일변 생각하면 도리어 그  
 들의 세력을 키워주는대 지나지 아



니 하려니, 이것이 조선어학회의 권  
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것이 아니겠  
음니까.

기자. 우리도 그럴줄 모르는 것이 아  
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논  
박하는 것을 일대 금물(禁物)로 알  
아, 그새 일체 침묵을 지켜 왔읍  
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종 사소한  
것이라 하여 그대로 버려둘수 없  
는 것입니다. 박테리아(微菌)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작은 것이  
나, 그것이 사람의 몸에 한번 붙으  
면 크게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리의 운동을 백방으로 치  
회하려한들, 당신의 말과 같이 대  
세는 이미 청하여진 것을 어떻게 하  
라마는, 그들의 잡지에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목실을 하어도, 우  
리는 조금도 그것을 저주려하지 않  
았거니와, 요지음 그들의 각지로  
돌아다니며 민중을 속이는 것과 어  
린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선동하는 것  
은 크게 화근이 되는지라, 아무리

하여도 그대로 둘수 없는고로, 그  
음모한 행동을 한번 공개하여, 민  
중으로 하여금 이후부터는 그런 것  
에 속지 말라는 주의를 일으키게  
할뿐이요, 결코 우리가 그들의 악  
행을 응징(膺懲)하 려는 뜻은 아  
닙니다.

손. 또 신문을 보니까, 그들은 그  
것을 모두 무근지설(無根之說)이라  
하여, 공개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  
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또 청명서  
를 발표한다 하니, 그때에는 당신  
들이 또 어떻게 대응할런지요? 자  
꾸 그렇게만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될 모양인가요.

기자. 그들이 지방 유세(遊說)와 학  
생 순방(巡訪)을 무근지설이라니?  
그런 뻔뻔스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까? 그들이 갔던 지방으로부터 우  
리 조선어학회에 그 사실을 조사  
하여 편지한 것이 많으며, 우리 회  
원중으로 그 지방에 갔을 때에 친

히 목도한 일도 있었고, 어떤 지  
방에서는 그곳 유자들이 그들의 행  
동을 과심히 생각하였는지 그들을  
공격하는 강연회라도 한번 열게하여  
달라는 청원까지 우리 회에 왔으  
며, 그들 얼마전에 조선문기사법  
기청회(朝鮮文記寫法期成會) 위원들  
에게 보낸 김명진(金鳴鎭)씨의 지  
박유세 보고회(報告會)에 오라는  
통지서를 기자가 목도한바이며, 또  
어떤 기사법기청회 위원의 말을 들  
으면, 처음에 박승빈(朴承彬)씨의 발기로  
반대 청명서를 발표할 때에 한글  
신철자 반대하는 서류에 민중의 도  
장을 많이 받아가지고 총독부에 건  
의서(建議書)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이라 함을 기자가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와서 질문하면 누구누구라  
고 성명까지 증거하여 말할수 있  
읍니다. 학생 순방한 사실은 정음  
제 육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  
니까. 이렇게 증거가 확연한 것을



무근지철이라 하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암실기심(暗室欺心)도 분수가 있지,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는 이까짓것을 별로 문케삼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민중을 속이는 사실만 들어서 한번 공개하는것으로써 할일은 다한것이니, 이 이상 더할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뒤로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우리는 그친과 같이 그것을 치지도 의하여 일체 상관하지 아니할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시급한 한글과 학화운동(科學化運動)에만 치중하여 하루바삐 한글의 통일과 보급이 완성되기까지 희생적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의 큰 사명(使命)을 다할 결심입니다.



손이 그는 참 광명한 일입니다. :

## 조선어학회

### 강연회

지난 二월 二十三일 하오 三시반 본회 회관에서 강연회를 열고, 정인섭(鄭寅燮)씨의 「각국의 표준어」란 연제로 강연이 있었다. 예청에는 최현배씨의 「철자법의 원리」에 대한 강연까지 하려하였으나, 시간관계로 중지하기로 하고, 등 四시 五十分에 폐회하였는데, 본회 회원의 출석 이외에 오십여명의 방청이 있었다.

### 임시총회

二월 二十三일 하오 五시반, 간사장 이희승씨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을 침명하니, 회원 출석이 삼륙인이요, 회원 밖의 방청인이 오십여명이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 이극로씨의 회칙개정(會則改正)에 대하여 본회의 활동과 사업은 날로 날로 발전하여감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서 지금 준용하고 있는 회칙은 이미 여러해전에 만든것이라, 회세(會勢)의 발전에 비하여 다소 뒤떨어진감이 없지 않으므로 부서(部署)를 더 늘리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며, 회칙개정의 일체 사무를 간사 세사람에게 일임하여 금년 사월의 정기총회에 발표하도록 하자는 이만규씨의 동의와 정인섭씨의 재청으로만 장일치 가결하였다.

그 다음 신사항에 들어가 사회 이희승씨가 반대자 측으로부터는 대에 정당하지 아니한 행동을 함에 대하여 보고가 있을것을 선언한후, 우리 회에서 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와 표준어를 사정할 때에 전후 양차나 박승빈씨에게 합동하기를 간청하였으나, 도무지 응하지 아니하고 따로 학파를 만들고 그 기관 잡지에 항상 육철만 일삼는다는 이극로씨의 보고가 있고,

숙천(肅川)에서 조사된 한글 반대자들이 총독부에 신청자범 반대건의서



를 케출한즉, 신철자 반대자의 도장을 많이 받아오면 곧 조선어독본에 신철자 채용한것을 철회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며 도장을 받을러 다닌다는 최현배씨의 보고가 있고, 영변(寧邊)에서 조사된 대동상업학교 교원 김명진(金鳴鎭)씨가 그곳 공의 공생조합의 서기 각 일인의 도장을 받고, 박승빈씨를 강사로 청하여 강습회를 열라는 권유를 하였다는 김운경씨의 보고가 있고, 선천(宣川)에서 조사된 천기 김명진씨가 그곳 대동서관에 유하를 시켜 심여명의 도장을 받고, 박승빈씨를 청하여 강습회를 열라는 권유를 하였다. 는 것과 강원도 함경남도 방면에도 사람을 보낸 형적이 있다. 이는 이운재씨의 보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이희승씨가 학부국 편수과에



本會講演會光景

中等學生巡訪記의 기사에 대하여 그 일부 학생을 조사한즉 사실이 아주 착

에 공포하기로 만장일치가 결하고 등 육시삼십분에 폐회다.

오된것과 학생들에게 한글 철자법 반 질문한 권말의 보고를 하고, 조선어학 연구회 기관지인 경음에 기케된 「市內 대를 선등한 후막이 있다는 이운재씨의 보고가 있었으며, 방청인으로 참석하였던 이명칠(李命七)씨가 언권을 얻어, 계병시보(啓明時報) 제 십일호 기사중 「出版業者가 본 最近朝鮮 讀書相」이란 제목으로 이문당(以文堂) 권무취척역 안홍(安泓)씨의 글은 당초부터 안씨가 쫓겨나서 일도 없고 말한 일도 없는것을 어떤자가 그렇게 하겠인지도 알수 없는데, 더욱이 한글 철자법에 대한 불경한 언사까지 한것은 귀히 여려분에게 대하여 크게 미안하다는 안홍씨 자신의 사과가 있었다. 이상 여러가지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음모한 사실을 한번 일반에게 알리를 필요가 있다. 하고, 이희승씨가 「한글 통일운동에 대한 반대음모 공개장」을 낭독한후, 이것을 사회



出刊豫告

正龍飛御天歌

附古語解

〔印刷中〕

定價 五十錢

龍飛御天歌는 世宗大王 二十七年(訓民正音頒布前一年)에 한글을 使用의 첫 試驗으로 쓴 책이다. 이것은 藝術로 歷史로 文學으로 言語로 크게 研究할 價値가 있다 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그 正文에다 古語의 註解를 달고, 끝에 古語 語彙를 가나다順으로 버려 써서 古語辭典을 兼用하기에 足하다. 朝鮮語를 研究하는 이로 마땅히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朝鮮語學會出版部 白

○남은 말씀

◇ 이번호는 한글 통일 운동에 대한 반대 음모 공개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그것에 관계되는 기사와 논문등을 한대 거두어 실게 되는 관계상, 다른 글은 하나도 실리지 못하였으며, 늘 계속하여오던 글도 부득이 전부를 다음호로 밀게 되었사오니, 실로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아오나 애독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특히 양광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호를 될수있는대로 일즉 내려고 다름때보다 특별히 빨리 서둘렀던것이 도리어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여러분분의 깊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 처음 작정에는 이「한글」의 편집 방법을 고쳐서 수준을 훨씬 낮게 하여 일반 통속화하게 하는 동시에 때때로 학구적 논문을 모아서 특집(特輯)을 내기로 한 것이었으나, 그새 일년이 넘도록 허다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것이 크게 유감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문 용비어천가(正文 龍飛御天歌)를 다행본으로 발행하여 한글 연구하시는 이에게 한 번 구제로로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그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인쇄가 그리 쉽사리 못되어 아마 사월중으로나 나올 예정입니다.

社告

한글新義州支社

一、區域 新義州府一圓  
一、位置 新義州松山堂  
一、任員 支社長 朴潤元  
右와같이 支社를 新設함  
읍니다.

定價	一個月 七錢	代金은
	三個月 二十錢	반듯이
	六個月 四十錢	선금을
	一年 七十五錢	要함。

昭和十年 二月三十日 印刷  
昭和十年 三月 一日 發行

京城府花洞一八九番地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八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韓仁澤著

長篇小說

# 旋風時代

四六判五〇〇頁  
定價一圓二十錢  
送料十二錢

朝鮮日報의 長篇小說 懸賞募集에 應募한 二千餘個의 作品中에서 一等的 榮位로써 當選된 이 作品의 藝術的 價値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云云할바가 아니다。一九三〇年 以後로부터 全般的으로 沈滯와 怠氣의 傾向을 나타낸 朝鮮文壇에 있어서 韓仁澤氏가 나오게 된것은 實로 全文壇에 更生의 刺戟을 주게된것은 누구나 承認하게 되는것으로 또한 이에 對한 氏의 全文壇의 功績의 根源은 實로 이 作品 旋風時代에 있는것은 너무나 明白한 일이다。

旋風時代로 말하면 이미 朝鮮日報에 連載되어서 滿天下의 文學愛好의 讀者諸賢을 그 創作的 魅力으로 陶酔시키었는것으로 氏의 그 雄大한 構想과 華麗한 筆致로써 全力을 傾注하여 生産한 이 大作品은 能히 우리들에게 文學的 價値로써는 勿論 興味本位의 觀點에서라도 再讀三讀의 價値를 가진 作品이다。그우에 畫伯 安碩柱氏의 挿畫와 圖案家 金華氏의 裝幀은 이 作品을 더한層 빛낼것이다。이케 이러한 大作品을 可及的으로 滿天下의 讀書家 諸氏에게 普及시키려고 本社에서는 犧牲的 勇斷을 아끼지 아니하고 廉價版으로 斷然發行하여 讀者諸賢에 앞에 提供하는바이다。

方今發賣中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一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新春劈頭 讀書界에 던지는 巨彈!!

本社에서 刊行한 沈熏氏의 力作!!

發賣前부터 注文이 殺到하는 大人氣

長篇小說

# 永遠의微笑

四六判 五〇〇頁  
定價 一圓三十錢  
送料 十二錢

『永遠의微笑』는 일즉이 中央日報紙上에 連載되어 十數萬讀者의 마음을 쥐어 흔들어 놓던 沈熏氏의 力作이다。이 小說이 끝을 막자 讀者에게로부터 오는 讚辭와 激勵에 응지기어 이제 單行本으로 發行하게 된것이니 作者의 力量을 이제 세삼스럽게 紹介할 必要가 없거니와 氏는 朝鮮文壇에 있어서 天才라는 이름을 듣는다。 더욱이 이 『永遠의微笑』는 朝鮮의 農村에서 取材한 것이니 이땅을 질머지고 나가는 朝鮮青年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질것이요, 좋은 先生이 되어질 줄 믿는다。『永遠의微笑』를 읽지 않고 어찌 小說의 맛을 알것이며 朝鮮의 農村을 아랴。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

## 漢城圖書株式會社

電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